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선원의 대형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지집> ● 본필: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아름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수계는 각자 마음의 뿌리와 함께 일체제불·만물만생과 결부돼

▲스님: 여러분에게 오계를 설하겠습니다.

첫째, 불살생계이니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까?

▲대중: 아끼겠습니다.
둘째, 불투도계이니 일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대중: 가지겠습니다.
셋째, 불사음계이니 일체 사된 마음과 음심을 버리고 항상 마음을 청정하게 하겠습니까?

▲대중: 청정하게 하겠습니다.
넷째, 불말어계이니 일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항상 진실되게 살겠습니까?

▲대중: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다섯째, 불음주계이니 절대로 술을 과음하지 마며 자기와 남을 위하여 분수를 지키겠습니까?

▲대중: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수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 게 있습니다. 신도님들이 수계를 언제 받았는지 받았는지 하는 것을, 수계첩은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물 한 통이 떠놓고 왼손으로 들고 왼편으로 세 번 돌리고 네 번째, 즉 말하자면은 '두루 한도량에 전답이 되게 하소서.' 하고 주인공에 관한 고선 태우시는 겁니다. 열 장이 됐든지 스무 장이 됐든지 단 한 장이 됐든지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도리전에 모든 게 통신이 돼서 거기서 다 차원이 주어져 갑니다. 그러니 그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글자만이 아니라, 이름만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뿌리와 더불어 결부가 돼서 하는 거니까,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한마음으로서 결부가 되고 일체 만물만생과도 더불어 같이 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톨 살다가 이 모습을 잃어가고 다시 또 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다시 진화시키고 변화시켜서 다시 형성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상(上)세계의 차원이 주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모습을, 이 생명의 모습을 타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왜, 은비까비라는 만화 보셨죠? 비슷하지만 그렇게 남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내가 나타나게 하려면 나타나게 하고, 또 나타나서 안 될 일이라면 안 되게 하고 그럴 겁니다.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위로는 부처님의 한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가신다면 우리가 꼭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계를 받았는데 될 뻔 하나 어려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자기가 한 것이 자기한테 모두 연관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재차 말하지만 이것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합해서 같이, 공법으로써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평등공법으로써 말입니다. 평등공법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입을 빌렸을 뿐이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또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톨 살다가 죽으면은, 항상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상(上)세계의 차원이 되느냐, 하(下)세계의 차원이 되느냐, 중(中)세계의 차원이 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중세관 상세계와 하세계의 교차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를, 그것을 누가 봐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 놓은 것이 자기에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정수, 누구나 다 정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수에까지 도달한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변화해서 돌아가지만, 주장자를 쥐지 않고는 대뇌와 육신 속의 생명들과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대뇌하고 정신계 또는 물질계, 이 몸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의식들이 다 한데 합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게 하기 위해서 일거수 일투족을 다 거기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를 다 놓게 되면 정말, 즉 수억겁을 통해서 자기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되고, 진화되고 형성되면서 수 없는 그 세월을 거둬들여 태어나면서 사람까지 왔던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께 서는 내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고, 내 생명 남의 생명이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나의 부모요 나의 자식이요, 나의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 내 모습 내 형태, 바로 부처님의 법이 우리들의 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진짜로, 진짜가 아니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으니가 상대가 있는 거고 상대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종교를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첫째, 내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졌고 상대가 있고 부처님법도 있는 것이고 진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진정코 내 종자의 뿌리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도깨비장난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내 주체의 불성을 진짜로 믿어야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자기 뿌리가 없이 그렇게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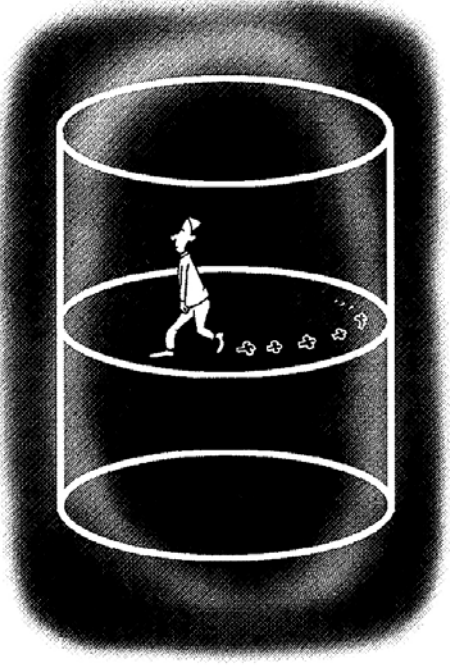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한테 수처에 말씀드렸지만 고정되게 보고 고정되게 듣고, 고정되게 말하고 고정되게 만나고,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상 생활에 움직여가는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을 것이고 있어, 아시라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발자국을 남기는가 하면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애지는 채로 그냥 떼어 놓습니다. 사실 이요?

▲대중: 예.
▲스님: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지구가 초월해서 돌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이 소리를 들으면 금방 다른 소리를 들어야 하고 연방, 연방 이렇게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를 여러분의 마음이 관습에 의해서 의식을 갖고 선 그거를 쥐고 오히려 매달려서 놓지 않기 때문에 업이 생기는 거고 고가 생기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지구가 실 사이 없이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방이 붙을 게 뭐 있으며, 업이 붙을 게 뭐 있으며 유전성이 붙을 게 뭐 있으며 생사에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삼천 년 전 진리와 지금 현재의 진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시대가 변하는 대로 우리는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용어와 지금 용어가 다르구요. 다르지 않으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연방연방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어디 여러분의 그릇에 담길 게 있어서 업이 됩니까? 한 발짝 떼어놓으면

이 살기가 허덕허덕한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살게 돼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게! 그런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거를 몽땅 다 놓는다면 하늘을 보고 허허 웃어도 그냥 공법이고 평등하고 여여하게 살 수 있고, 사는 게 그렇게 여여하다는 걸 아신다면 모두 갖추어 있는 것도 알게 돼요.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해야 할 수 없는 방법을 들이고 내는 데도 손색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흐뭇하고 묘하고, 자기의 보배 구슬이 자기한테 제가끔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삶도 가난하구요. 혼자 부겨온 것을 들러니 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선 안과 밖을 조복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생명들도 흡수해서 나로 만들고, 바깥의 것도 흡수해서 나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안과 밖을 둘 아니게 조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더 묘한 것은 자동적으로 정수에 물을 붓는다고 하죠? 부처님의 말씀이, 그런데 깨우친 사람에게 의해서만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장자를 딱 쥐고 나가는 데는 항상 통신이 돼서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사대에서 통신이 되면서 바로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 진리가 심성과학이 아니고 뭐니까? 꼭 연구해서 어떻게 내는 것만이 아니라 말없이 묵묵히, 농사를 지어서 밥을 해내는 것도 과학입니다. 꼭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일거수일투족이 다 심성과학이며 진리이며 여러분 앞에 보배가 있는 것이죠. 그 보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편리하게, 지금 세상에 내가 잘 살아야 다음 세상이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없다면, 살지 못한다면 요 다음 세상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도 오늘 볼 줄 알아야 하고 미래도 오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행동과 삶, 또는 진실, 지혜로써 모든 것을 내 마음 내 모습 아님이 없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남이 아무리 벌레 짓을 하고 짐승같이 굴더라도 '저놈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전자에 모를 때에 저런 모습으로 행을 했었지. 옛날의 내 모습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그래야 그쪽에까지도 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짐승 같은 놈이라고 마음으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한다면 그 불이 딱 끊어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본다면 여러분 육신 속에 수억겁을 진화해서 형성된 장본인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신다면 우리가 한바탕 짚고 앉게 되죠. '참, 모두가 말은 할 수 없으나 너무 말을 할 게 많아서 말 할 게 없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짚고 웃을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게 유연하고 없고 또는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뻗어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이 자기로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의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의 해결사가 돼 줄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의 의사가 돼 줄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요즘 가만히 보면은 위암이나 간암에 걸려서 앓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덩뎡 덩뎡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보니까, 안 한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살구요, 지금도 살고 있고, 수술을 한 사람은 그냥 죽도록 머리가 빠지고 구역질을 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구덩이로. 이왕 죽을 거라면 왜 그렇게 죽습니까? 이것도 내 생각인지는 몰라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을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조복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같이 울면서 작용을 해 준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믿지 않아도 어느 정도 주인공 주장자를 쥐고 나가면서, 만약에 병원에 가서 무슨 필요

모든 생명·중생들 위해
한마음으로 행하면 꼭 성공

관하는 마음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용도가...

어, '그러고 편안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편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원력이, 예를 들어서 하늘이 무너지는데 손가락 하나로 받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평등공법에서 나오는 원력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묘법이고 얼마나 보배력이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말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지금 얘기한 대로 믿고, 이 세상에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관하면 대뇌를 통해서 사대(四)대로 통신이 됩니다. 그런 진정으로 믿어서야 될 겁니다. 사람 사는 것도 모두가 과학이니까요. 그래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모든 말은 소입자가 다 연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통일해서 모든 것을, 적은 거는 채우고 많은 거는 덜고 해서 고르게 작용을 해 준다면 몸이 본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정수의 자동적인 컴퓨터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안 되면 어찌해도 생각 못하고 오늘도 생각 못하고 내일도 생각 못합니다. 그렇게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습에 젖어서 항상 기록으로 한다면 또는 바깥으로 끄달린다면,

든가, 바깥의 형상과 이름을 보고 기도를 한다든가 해서는 안되는 거죠. 거기 연관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믿고 하면은 앞서 입력된 업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세공성이란가 업보성이라든가 인과성이 모두 삭제되는 거죠. 앞서의 입력된 것이 없으면서 새로운 것이 없으면서 내 구덩이에서 업을 제하지 않으면은 딴 구덩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온 구덩이 에다가 바로 즉시 입력을 해야 그 구덩이로 들고남이 없이 들고나니까요.

그래서 수계를 받고도 한 번 받아, 두 번 받아, 세 번 받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제각각이죠. 하나 이것도 마음의 정성이요. 그래서 보이는 거는 계층이지만 안 보이는 거는 송두리째 다 입력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이 몇 번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더군다나 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면 지금 말로 그게 바로 백이라고 할 수 있죠. 크나큰 핵을 얻는다는 얘기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으니 너에게 무엇을 주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 하나를 전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길을 지나가다가 보이는 돌을 봐도 소중하고 나무 한 뿌리를 봐도 소중한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공부를 했을까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모두가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전부 내 스승 아닌 게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모두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그래서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으로 진리는 끝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평등공법으로써 걸림 없이 나의 주장자를 쥐고 여여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소리를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파 알아 듣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한 발짝 없어도 인생살이가 다 그러하데 어디 그렇게, 업보를 담는 그릇이 따로 있어서 업보가 되고 유전성이 되는 겁니까? 단,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이거 못해, 저거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분별하면서 반복해서 길을 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셈이요. 끝없이 말이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이 중세에서, 제일 첫번째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줄 알아라. 내가 나온 줄을 안다면 수역검으로 통해서 너를 진화시키고 형성시킨 너를 보배로 삼아라. 너부터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 수 있느냐.' 하셨는데, 여러분은 봤으면 자기가 봤다고 그러지 바람처럼 도망갔던 말은 안해요. '내가 오늘 아무개를 보고 왔는데.' 이러거든요? 한 발짝 떼어놓고 왔다고 하는 거나 똑같죠. 한 발짝 떼어놓고, 왔으면 또 떼어놓게 되죠? 연방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도리를, 아주 흥겨운 도리를 모르고 항상 짐작에 짐겨있고 관습에 잡혀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적을 해야 삼재가 안 생기고 애호가 안 생긴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는데도 부적을 하고 날짜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이나 여러분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으로 진리는 끝없이 돌아가고 있어